

국가정보원 창설 43주년 축하 메시지

국가정보원 창설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과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권력의 손발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정보관리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로 섰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국정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고영구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보가 곧 국력'입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나고, 그 책임은 더 막중합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정보역량은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경제정보 수집에서부터 테러와 사이버 범죄 대비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국가예산을 들여 육성해낸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조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정보원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잘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창설 43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